

타운뉴스 종교면은 교회, 사찰, 성당 등 종교기관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귀 기관에서 홍보하고 싶은 행사나 기사거리가 있으면 이메일 (info@townnewsusa.com) 또는 전화 (562-404-0027) 로 알려주세요.

종교



# 자신을 마는 것이 천국이다(마태 21, 28-32(가))

## 목회자 아버지 학교 두란노 아버지학교 미주본부

두란노 아버지학교 미주본부가 9월10~12일과 17일, 부에나파크 갓즈패밀리교회(담임목사 유대호, 6551 Westem Ave., Buena Park, CA 90621)에서 제16기 목회자 아버지학교를 개최한다.

이번 아버지 학교에서는 박세현 목사(예수교회), 국윤권 목사(충현선교회), 이정엽 목사(LA 온누리교회), 성요셉 목사(소망장교회)가 강사로 나서 각각 ▶아버지의 영향력 ▶아버지의 남성상 ▶아버지의 영성, ▶아버지의 사명을 주제로 강연한다. 참가비는 150달러이다.

아버지학교는 지난 1995년 10월 한국 두란노서원에서 처음 개설됐다. 오늘날 사회가 안고 있는 각종 문제는 가정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아버지'를 회복시키자는 목적으로 시작됐다. 아버지 학교는 강의, 영상물 시청, 간증, 나눔, 찬양의 시간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문의: (714) 313-5535

## '밀알의밤' 개최 남가주밀알선교단

남가주밀알선교단이 개최하는 '밀알의밤' 행사가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우리는 가족(We Are Family)!' 갈라디아서 6장10절'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이번 '밀알의 밤'에는 특히 한국의 개그맨 김영철 씨가 게스트로 나와 그의 인생과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이다. 김 씨는 1999년 KBS 14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했으며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인기를 끌고 있다.

이번 밀알의밤을 통해 모금된 수익금 전액은 장애인 학생들에게 '2024 밀알장학금'으로 지급된다. 티켓 가격은 20달러이다.

- 밀알의밤 행사 일시와 장소는 다음과 같다.
- ▶29일 오후 7시30분, ANC 온누리교회(10000 Foothill Blvd., Lake View Terrace, CA 91342)
- ▶30일 오후 7시, 주님의영광교회(1801 S Grand Ave., LA, CA 90015)
- ▶10월1일 오후 7시, 감사한인교회(6937 Orangethorpe Ave., Buena Park, CA 90620)

▶문의: (562)229-0001 admin@milalsca.org

신앙의 열매를 세속의 눈으로만 본다면 참으로 '요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을 형편없이 살았던 자들이 하나님의 칭찬을 받아 천당에 일찍 들어가는가 하면 열심히 경건하게 살았던 자들은 주님의 호된 꾸지람을 받아 천당문 밖에서 방황하기도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의 주님 말씀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있다"(마태 21.31). 이게 얼마나 큰 모순이요 충격적인 발언입니까? 유대인들로부터 존경받는 대사제와 원로들이 도대체 창녀들만 못하며 도둑이나 세리만도 못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새겨 들어야 합니다.

어떤 부부가 서로 다툰 뒤에 저를 찾아와서 상담한 일이 있었습니다. 남자의 얘기를 들으면 여자가 나쁩니다. 남자 자신에겐 흠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자의 얘길 들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남자가 나빠도 보통 나쁜 것이 아닙니다. 여자에겐 잘못이 없습니다. 그런데 서로에겐 흠이나 잘못이 없는데 왜 늘 서로 싸워야 하는 모순 속에서 몸부림쳐야 하나? 문제는 간단합니다. 그것은 남의 잘못은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의 잘못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불행의 원인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왜 유대교에서 존경받는 대사제와 원로들이 창녀나 도둑만도 못하다는 꾸지람을 하시느냐? 아주 뻔한 것입니다. 도둑이나 창녀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주님께 매달릴 줄은 알았습니다. 그러나 대사제와 원로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불행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천당과 지



옥의 차이입니다.

남은 잘 알고 있지만 자기 자신은 모르고 있다면 것처럼 어리석은 불행도 없습니다. 성서에 보면 분명히 그렇습니다. 자기 죄를 알고 있다는 것은 이미 천당에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이요, 자기 죄를 모르고 있다면 그는 여전히 천당에서 멀리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또는 얼마나 큰 죄를 짓느냐 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인정하고 고백하면 됩니다.

십자가 옆의 강도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매달려 자비를 빌었을 때 그는 이미 낙원을 약속 받았습니다(루가 23.39-43참조). 도둑이었던 세리도 자신이 부정직하고 욕심이 많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자기 죄를 뒤우치고 하나님의 자비를 간구했을 때 그는 이미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사람은 자신의 공로는 아주 잘 알고 있었지만 자신에게 믿음이 없고 사랑이 부족하며 용서가 없었고 그리고 이웃을 너무도 무시했던 자신을 몰랐습니다. 그

래서 불행했습니다(루가 18.9-14 참조).

옛날 어떤 임금이 교도소를 순시하게 되었는데 그때 죄수들이 임금에게 자신들은 아무 죄도 없는데 억울하게 들어왔다고 하소연을 하더군요. 그때 임금은 그러냐고 하면서 그들을 동정해 주었는데 마지막 한 사람만은 아무 말도 못하고 훌쩍 훌쩍 울고 있더군요.

그래서 사연을 들어 보니 자기는 죄가 많아서 임금님 앞에 머리를 들 수 없는 처지라고 한탄하더군요. 이때 왕이 신하들에게 그랬답니다. 이곳엔 죄 없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곳인데 왜 죄인을 이곳에 들여보냈느냐고. 그래서 그 죄인은 그날로 석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요즘 흔한 말로 '주제 파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주제 파악이 안 되면 아주 피곤합니다. 하나님은 무슨 잘못이나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주제 파악이 안 되는 죄만은 용서가 안 됩니다. 용서를 하시고 싶어도 계속 감추고 숨기고 있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합니다.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창녀만도 못하고 도둑만도 못한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신앙은 어찌보면 어리석은 삶입니다. 첫째가 골짜기 되고 골짜기가 첫째 된다는 말씀은 깊이 새겨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께는 거짓이 없습니다. 따라서 남의 허물을 보기에 앞서서 자신의 잘못을 바로 보도록 합시다. 이것이 잘 살고 잘 믿는 길입니다.

-강길웅 신부-

# 한남체인 내 코웨이 & 실드라이프

Covid-19 소독제품  
여러종류 마스크 판매

정수기 / 비데 / 공기청정기 / 연수기  
실드라이프 전기매트, 전기장판

정수기 판매 및 렌탈

714.523.9588 / 714.471.1843 5301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1 한남체인 내